

떠나자 독일로! 내일로!

-2023학년도 인문대학 International Story 공모전 참여 수기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2학기 독일 University of Bayreuth 교환학생 파견을 마치고 돌아온 최**이라고 합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것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수기를 통해 향후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우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목차

1. 동기	2
1.1 Fußball	2
1.2 타향살이 로망	3
1.3 주변인들의 적극적 권유	3
2. 파견 준비방법	4
2.1 참여 국제교류 프로그램	4
2.2 전남대학교에서	4~6
2.3 파견 대학교에는	7
2.4 출국 준비	8
3. 파견 대학 생활	9
3.1 기숙사에 입주하기까지	9~11
3.2 버디 프로그램	11
3.3 교환학생 대상 프로그램	12
3.4 수강신청	13
3.5 수업 진행 및 평가 방식	14
4. 현지생활	15
4.1 독일에서의 삶과 Tip	15~18
4.2 FC Eintracht Bayreuth	18~19
4.3 한·독 스터디	20
4.4 국내·외 여행	21~24
4.5 귀국 준비	25
5. 성취 목표 · 학업/교육 성과	26
5.1 인문학도로서 배운 것들	26
5.2 귀국 후 어학 자격증 공부	26
6. 개인적인 소감	26

1. 동기

1.1 der Fußball [남성 명사: 축구, 축구공]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입니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선 월드컵이 개최되었습니다. 저희 학급은 미술 시간에 월드컵 참가국의 국기 그림을 색칠했습니다. 당시 학급 인원은 32명으로 월드컵 본선 참가국 수와 꼭 맞아 떨어졌습니다. 선생님께선 서른두 개의 그림을 모두 칠판에 붙여놓으시고, 참가국이 탈락할 때마다 그 국가의 국기를 떼어냈습니다. 저는 처음에 네덜란드인지, 프랑스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단순한 국기를 배정받았습니다. 옆자리 친구는 한눈에 보아도 색칠하기 어려워 보이는 국기더군요. 바로 스페인이었습니다. 친구를 잘 타일러 서로 그림을 맞바꾼 뒤 색칠을 마쳤습니다. 한 달 정도 진행되었던 월드컵 대회 기간 동안 제가 색칠한 스페인 국기는 칠판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네, 스페인이 월드컵에서 우승했습니다.

저는 그 일로 축구라는 스포츠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운동장에서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뛰어다녔고, 해가 지면 박지성 선수가 활약하던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부터 UEFA 챔피언스리그까지 해외축구를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낮엔 학교를 다니고, 밤을 새워 축구를 보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즈음해서 독일 분데스리가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등장합니다.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유망주가 나타났다는 찬사와 함께 등장한 그는 순식간에 언론의 관심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저 역시나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구경하기 위해 독일 분데스리가를 챙겨 보기 시작했습니다. 분데스리가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와 UEFA 챔피언스리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계를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한국 최고의 유망주가 뛰고 있고 시간도 부담스럽지 않으니, 학생인 제가 보기엔 안성맞춤이었죠. 이역만리 타국에서 활약하는 손흥민 선수를 보며 저에게도 꿈이 하나 생깁니다.

“언젠가 한 번은 직접 가서 경기를 보고 싶다. 나아가 나도 거기에서 축구를 해보고 싶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늘고, 입시와 현실에 치여 꿈은 자연스레 잊혀갔습니다. 낭만보다는 당장의 대학 진학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 독일언어문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입학 후에는 ELF라는 학과 내 축구 소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인문대학 등꽃체전에서 우승을 놓치지 않는 팀이라고 했습니다. 신입생이던 2018년도에는 대회에서 단 1분도 경기장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입대를 앞둔 2019년도에는 네 경기에 나섰습니다. 복학 후 주장 완장을 차게 되었고 2022년도엔 우승을 맛보았습니다. 축구를 즐기며, 가슴 속 저 너머 잊고 지냈던 꿈이 떠올랐습니다. 제 마음은 유럽에서 축구를 해보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교환학생을 떠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2 타향살이 로망

성년이 될 때까지 집을 떠나 지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교 시절에는 막연히 서울살이를 동경했습니다. 전남대학교를 제외한 수시 원서 5개를 모두 수도권 대학에 쓸 만큼 간절했습니다. 애석하게도 모집에 모두 떨어지게 되었고, 유일하게 붙은 전남대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오해가 있을까 말씀드리지만, 전남대학교가 못났다거나 오기 싫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지 어린 마음에 타향살이를 하고파 수도권 대학을 갈망했던 겁니다.

1학년을 마치고 경기도 파주에 있는 1사단에 입대하게 되며, 어느 정도 서울에 근접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 서울보다는 개성이 가깝겠네요. 실로 GOP 근무를 투입하며 오르는 언덕에서는 저 멀리 인공기가 휘날리는 북녘땅이 훤히 보일 정도였습니다. 애국심과 군인 정신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지만, 제 타향살이 욕구를 채우기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라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딘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 시기 평택에서 카투사로 복무하던 학과 동기와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전역 후 함께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기로 합니다. 희망을 안은 채 매달 40만 원이 되지 않는 월급의 절반씩을 적금에 넣으며 전역을 기다리던 중 코로나바이러스가 세상을 덮었습니다.

수도권 대학 진학 실패와 군대라는 공간의 제약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까지. 하늘이 저를 외면했나 싶었지만, 그렇다고 꿈을 저버리진 않았습니다. 전역 후 믿음을 가지고 돌아온 학교에는 타향살이 네 번째 기회인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3 주변인들의 적극적 권유

누이가 있습니다. 다섯 살 터울인 그녀는 제게 늘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말고 꼭 타국에 가보거라”라고 말해왔습니다. 특히나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류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걸 꼭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복학 후 학과 조교 선생님께서는 찾아뵈 때마다 “**이는 내년(2022년)에 꼭 독일에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보다 앞서 교환학생을 준비하던 동기 역시 제게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독문과 나왔는데, 독일 한 번은 다녀와야지”라는 친구들의 말도 있었습니다.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저는 교환학생 파견이 필연적인 운명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2. 파견 준비방법

2.1 참여 국제교류 프로그램

저는 전남대학교 글로벌대외협력처 국제협력과에서 진행하는 Exchange Program (교환학생)에 참여했습니다. 국제협력과에서 진행하는 해외파견프로그램에는 ‘해외 파견 교환학생’, ‘글로벌 해외 대학 파견’, ‘국제인턴’, ‘방학 중 단기파견’ 등이 있습니다.

2.2 전남대학교에서

교내 지원서 접수는 교환학생 파견의 첫걸음입니다. 1학기(봄학기) 파견의 경우 대략 파견 전년도 7월부터 9월까지, 2학기(가을학기)의 경우 대략 파견 해당 연도 1월부터 3월 정도까지 선발이 진행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2024-2025학년도 전남대학교 해외 파견 프로그램 선발 일정입니다.

프로그램명	시기	내용	파견학기	선발시기 (지원서 제출)
				면접일자 별도 공지
해외 파견 교환학생	학기	해외 자매대학에 파견되어 전공 또는 교양과목 이수	2024. 2학기 파견 (가을학기)	1차: 2024. 1. 8. ~ 1. 22. (일본 및 중국은 1차 선발 없음) 2차: 2024. 2. 19. ~ 3. 4.
			2025. 1학기 파견 (봄학기)	1차: 2024. 7. 8. ~ 7. 22. 2차: 2024. 8. 12. ~ 9. 2.
글로벌 해외대학 파견	학기	해외 자매대학에 파견되어 어학연수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2024. 2학기 파견 (가을학기)	2024. 3. 13. ~ 3. 24. (2차 선발 없음)
			2025. 1학기 파견	2024. 9. 11. ~ 9. 29.
국제인턴	학기	해외 기관 또는 대학 연구소 인턴십	2024. 2학기 파견 (가을학기)	2024. 3. 13. ~ 3. 24. (2차 선발 없음)
			2025. 1학기 파견 (봄학기)	2024. 9. 11. ~ 9. 29. (2차 선발 없음)
방학 중 단기파견	방학	해외 자매대학에서 방학 동안 어학연수, 인턴십, 전공 또는 문화 세미나	2024 하계	2024. 3. 18. ~ 3. 27. (2차 선발 없음)
			2024 동계	2024. 9. 16. ~ 9. 25. (2차 선발 없음)

▲2024-2025 전남대학교 해외 파견 프로그램 선발 일정

전남대학교 글로벌대외협력처 국제협력과, 2023.11.29

<https://international.jnu.ac.kr/Board/Board.aspx?BoardID=3&Mode=View&PageNum=1&Key=&Value=&Cate=%EA%B5%90%ED%99%98%ED%95%99%EC%83%9D&Seq=12869>

▲전남대학교 Outbound Programs, Exchange Program (교환학생), Application

● 교환학생 프로그램 신청

신청항목	프로그램 과정을 선택하세요.		신청서출력
프로그램선택	선택하세요		
성명(한글)	<input type="text"/>	성명(영문)	성: <input type="text"/> 이름: <input type="text"/>
소속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학번	<input type="text"/>	학년	선택하세요
학적상태	선택하세요	성별	<input type="radio"/> 남자 <input type="radio"/> 여자
자택전화	<input type="text"/>	휴대전화	<input type="text"/>
이메일	<input type="text"/>		

신청자격확인			
기 이수 학기	<input type="text"/>	기 이수 평균성적	<input type="text"/> / 4.5

공인 외국어성적

! 확인! 외국어 시험점수는 취업포털에 입력된 항목 중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점수만 입력 가능 하며 새로 취득한 외국어 공인검정시험은 **취업포털 사이트**에 입력하세요. 취업포털 사이트에 미입력 시 국제협력과 시스템에서 점수 확인 불가

영어 공인검정시험	<input type="text"/>
제2외국어 공인검정시험	<input type="text"/>

희망기관

연수희망기관	제1지망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검색"/>
	제2지망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검색"/>
	제3지망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검색"/>
파견희망기간	<input type="radio"/> 한 학기 <input type="radio"/> 두 학기(1년)		

자비유학(파견기관)	<input type="text"/>
* 글로벌 해외파견 프로그램이 아닌 개인 연수생만 작성	

자기소개 및 활동 계획

! 확인! 항목 당 300자 이내로 작성하며 항목별 작성 안내를 확인하세요. (전체 항목 한국어로 작성)

지원동기	활동계획	참가경험	서류첨부
<p>지원동기에 대하여 입력하여 주세요</p>			

0/300

전남대학교 글로벌대외협력처 국제협력과, 2023.11.29

<https://international.jnu.ac.kr/Program/ApplyOutProgram.aspx?prg=000001>

선발 기간 중 전남대학교 글로벌대외협력처 국제협력과 홈페이지에 방문한 뒤 상기 사항을 모두 입력하면 지원서 접수는 완료입니다. 지원서 작성 기한이 파견 기간보다 보통 8개월 정도 앞서 있으니, 학점이나 외국어 성적 등은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후 면접이 진행되며, 합격 시 다음과 같은 메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장 전체답장 전달 삭제 스팸차단 안읽음 이동 더보기 목록

여러분, 2022학년도 2학기 해외 파견교환학생으로 선발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내일(금) 오리엔테이션이 Zoom으로 있으니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라며, 피지못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불임파일로 있는 **미참석사유서**를 작성해서 **오늘(목) 자정까지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단, OT불참으로 인한 정보 누락 등은 본인이 책임져야 하며, 개별적으로 다시 오티를 해드리는 건 어렵다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오리엔테이션 링크는 1차 합격자에게도 재발송 되었으며, 혹시 1차합격자 중 오리엔테이션을 다시 듣고 싶은 학생은 들어오셔도 됩니다.

3. 11.(금) 오후 4시 Zoom

Join Zoom Meeting

<https://jnu-ac-kr.zoom.us/j/2461714987>

Meeting ID: [REDACTED]

Ms. [REDACTED]

Manager, International Programs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R Hub 214, 77 Yongbong-ro, Buk-gu, Gwangju, 61186

South Korea

[REDACTED]@jnu.ac.kr

+82-62-530-4433

▲전남대학교 글로벌대외협력처 국제협력과로부터 받은 메일
네이버 메일, 2022.03.10.

2.3 파견 대학교에는



Dear students,

You have been nominated to study as an exchange student at the University of Bayreuth.

Congratulations!

With this email, we confirm your nomination and provide you with information on the online application process.

Student Application Deadline: *15 May 2022*

In the attachments, you will find all relevant information, dates, and points of contact.

Please note that for the Law exchange programme the language requirements (German or English) are as follows:

For German:

- Goethe Certificate, at least B2
- TestDaF, at least 12 points, but no area below 3 points
- Telc, at least B2

For English:

- TOEFL, at least 75
- IELTS, at least 5.5

Please kindly make sure you upload the required languages certificates with your exchange application.

▲University of Bayreuth로부터 받은 메일
G-Mail, 2022.04.20.

오리엔테이션 진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파견 대학교로부터 지원서 작성 관련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University of Bayreuth 같은 경우에는 메일을 통해 Online application process를 첨부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최종 합격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기숙사 등록을 비롯하여 각종 메일이 쏟아지게 되는데, 당황하지 않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메일함을 다시 보니 기숙사 입주만 해결하면 되는군요. 기숙사는 파견교에서 첨부해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생년월일, 성별, 국적과 원하는 기숙사 유형을 선택하면 끝입니다.

2.4 출국준비

2.4.1 항공권

출국 약 석 달 전에 항공권을 구입했습니다. 카타르 항공(인천발-도하 경유-뮌헨행)을 이용했으며, 714,871원 결제했습니다. 카타르 항공에 학생 할인이 있어서, 다른 항공사보다 조금 더 저렴했습니다. 기내식도 괜찮고, 경유하는 동안 공항도 커서 구경 거리도 많고! 카타르 항공 추천합니다!

2.4.2 보험

보험은 Expatrio TK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최초 가입 시 약 110유로 송금했고, 계좌 내역을 찾아보니 5개월 동안 364.28유로를 더 납부했습니다. 보험료로 465유로 정도 사용했네요. Expatrio 보험은 한국에서 가입한 뒤 독일 입국 후 활성화할 수 있는 보험이라 편리합니다.

보험비를 아깝게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독일 입국하자마자 병원에서 가다실9 접종을 받는다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한 학기 체류하신다면 2회 접종까지 마치실 수 있는데, 한국에서 3회 접종이 55만 원~65만 원 사이니 보험료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가입한 TK 보험이 있을 경우에 접종이 무료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보험은 꼭 가입하세요!

2.4.3 짐

샤워기 필터나 수건, 그리고 택배로 주문해야 하는 물건들은 미리 준비해두었지만, 짐은 출국 전날 두 시간 동안만 짰습니다. 짐을 챙길 땐 스스로 미니멀리스트라 생각하며, 32인치 캐리어와 백팩에 모든 짐을 담았습니다. 의류와 생필품은 모두 담기더군요. 가뜩이나 먼 길 떠나는데, 양손이 불편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독일 입국 보름 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캐리어를 하나 더 준비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 음식을 가득 가져오지 못한 걸 매우 후회했습니다. 물론 다시 한국에 돌아올 땐 캐리어와 백팩 하나씩만 챙겨온 스스로를 대견해 했지만, 지내는 동안은 한국 음식이 그리웠습니다. 식탐이 없으신 분이라면 짐은 적을수록 편하단 걸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교환학생 지내는 동안 짧게 여행 다닐 일이 많으실 텐데, 기내용 캐리어가 있으면 편리합니다. 물론 이건 독일 내에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 그냥 참고만 하세요!

독일에 가져가야 할 짐은 체크리스트를 미리 만들어두었기 때문에 빠뜨린 것도, 과한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파견을 준비하며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메모장에 적어두세요.

3. 파견 대학 생활

3.1 기숙사에 입주하기까지

3.1.1 Oktoberfest

독일 입국 후 첫날은 뮌헨에서 머물렀습니다. 마침 옥토버페스트가 열리는 기간이라 축제에 참여해 맥주를 잔뜩 마셨습니다. 세계적인 축제고 분위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겨울학기 파견을 가시는 분이라면 꼭 참여해보시길 추천합니다. 타국 교환학생을 떠나시는 분들도 시기가 겹친다면 꼭 가보세요. 다만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다 보니, 지나친 음주는 삼가세요!



▲Oktoberfest와 1L짜리 맥주잔
직접촬영, 2022.09.28.

3.1.2 Eckersdorf

뮌헨에서 하루를 보낸 후 곧바로 파견 대학이 있는 바이로이트로 향했습니다. 기숙사 입주일까지는 약 일주일의 시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근교에서 'airbnb'를 이용해 집을 빌려 생활했습니다.

아마 이때가 독일 생활 중 가장 고달팠던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써도 써도 적응되지 않는 건식 화장실과 냉동식품으로 가득한 식단. 유배 생활과 다름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는 일주일 동안은 날씨도 맑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Schloss Fantasie, 직접촬영, 2022.10.03.

그래도 이렇게 멋진 공원도 있고, 독일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날씨가 꽤 좋았네요.

Eckersdorf에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낸 뒤 마침내 기숙사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시간을 보낸 이유는 기숙사 입주일을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전에 여행하실 분들은 그렇게 해도 좋겠네요.

3.1.3 드디어 기숙사

약속의 10월 4일이 되어 드디어 기숙사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짐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고, 한 번 꺼내면 다시 정리하기가 곤란한지라 출국 후 불편하게만 지내며, 기숙사 입주일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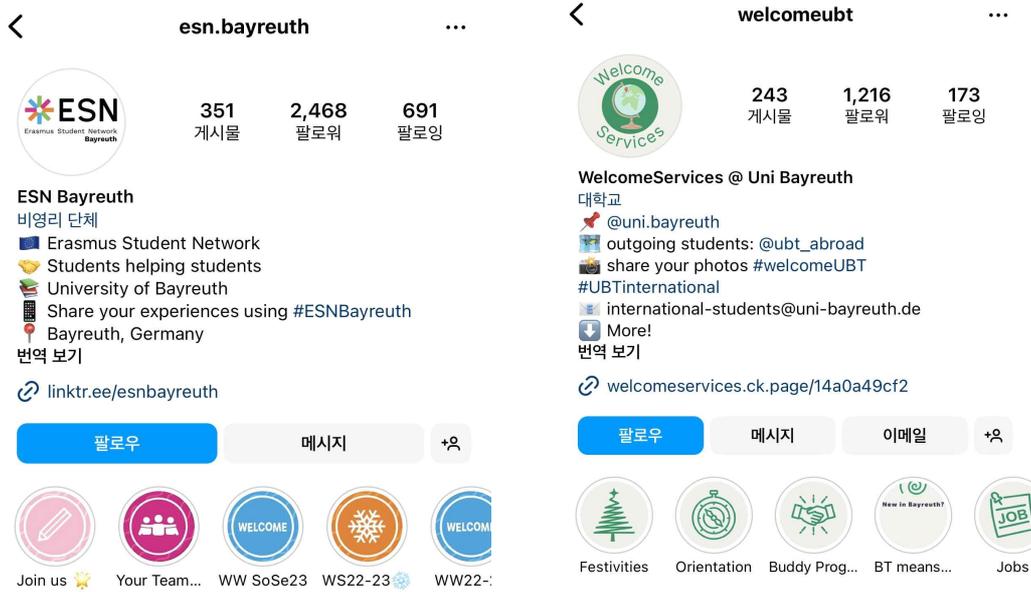
기숙사 입주일에는 Hausmeister(건물 관리인, 이하 하우스마이스터)의 사무실에 가서 신분을 확인하고 방 열쇠를 받으면 됩니다. 참 간단한 절차지만, 제가 머무는 기숙사의 하우스마이스터는 독일어만 사용하셨습니다. 독일어 실력이 조금 부족했던지라 당황했지만, 간단한 절차니 문제없이 끝냈습니다. 기숙사는 열쇠를 사용하는데, 잃어버리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술에 취했건, 몸이 아프건, 수업에 늦었건 열쇠는 꼭 챙기세요! 입주 절차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기숙사의 나머지 부분은 4.1.3에서 후술하겠습니다.

3.2 버디 프로그램

출국 전 한국에서 신청해둔 버디 프로그램 덕을 참 많이 봤습니다. 지내면서 느꼈지만, 외국 학생들과 접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대학에 파견 나와 있는 타국 학생들을 보면 이해가 편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디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대체로 우호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친해지기도 수월하고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학과 친구 둘과 함께 독일에서 생활했는데, 각자에게 버디가 한 명씩 있었으니, 총 세 명. 그리고 버디들이 데려오는 독일 친구들을 만나며 교류를 늘려갔습니다. 그 친구들 덕에 독일 파티도 가보고, 문화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축구 훈련에 참여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친해진 친구들과는 귀국한 지 일 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종종 안부를 묻고 있을 정도로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타국 생활에서 버디는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언합니다. 꼭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만약 파견 교에 버디 프로그램이 없다면, SNS 계정을 찾아보세요.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3.3 교환학생 대상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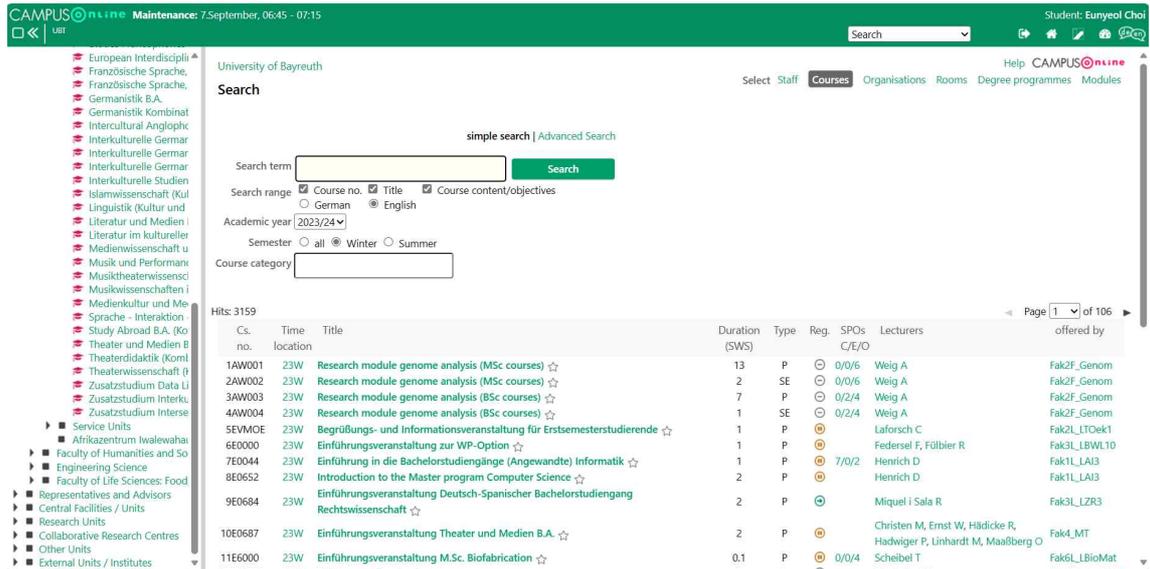
▲esn.bayreuth, welcomeubt, 인스타그램 캡처,
2023.12.22.

Erasmus Student Network에서는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캠퍼스 내에서도 홍보를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SNS를 통해 보시는 게 직관적일 겁니다. WelcomeServices @ Uni Bayreuth 역시 교환학생 파견 초창기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개강 직전 오리엔테이션이 집중적으로 열리는 기간(대체로 개강 1~2주 전)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동안 잠시 여행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에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환학생들의 경우 그곳에서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여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하니 여러분께서는 참여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3.4 수강신청

우리 대학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저는 항상 실패하죠.



▲Campusonline.un-bayreuth, 2023.09.07.
<https://campusonline.uni-bayreuth.de>

2022년 10월 13일, 파견교로부터 UBT Campus Online ID를 발급받았습니다. Campus Online에서 화면 오른쪽 상단 바를 누르시면, Course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해당 학기 개설예정 과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작성했던 본교 이수계획서와 상이한 부분이 생긴다면, ‘국외 파견학생 수강 예정과목 변경사유서’를 제출하면 되니, 큰 걱정은 마세요.

수업 별로 진행되는 언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강하고자 하는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지, 아니면 독일어로 진행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바이로이트 대학교에는 한국어 수업이 있으나,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은 수강이 불가하오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5 수업 진행 및 평가 방식

저는 지내는 동안 ‘German Elementary Course Level 1’ 수업 하나만 수강했습니다. 대면 수업입니다. 영어로 진행되며, 레벨 테스트는 따로 진행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업은 다른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위주로 진행됩니다. 매시간 과제가 있는데, 발음 연습을 하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예습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탈리아어 수업도 신청은 했으나, 수업이 독일어로 진행되는 탓에 수강신청을 취소했습니다.

제가 들었던 수업은 학기말시험만 봤습니다. 말하기 시험과 쓰기 시험이 있습니다. 겨울학기 기준 어학 수업은 첫 주와 둘째 주에 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없던 출석 점수가 2022학년도 겨울학기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4회까지는 이유 불문 결석을 인정해 줍니다. 말하기 시험은 파트너와 함께 보고, 미리 합을 맞추어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4. 현지생활

4.1 독일에서의 삶과 Tip

4.1.1 독일에선 무얼 입습니까?

여름은 지내보지 않아 모르겠으나, 독일의 겨울은 무척이나 춥고 어두우며 습니다. 최저 영하 20도에 근접할 정도로 춥습니다. 국내 중부 지방의 추위를 경험해보신 분은 괜찮을 수 있으나, 저와 같은 광주 또는 남부 지방 출신 학우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추위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두꺼운 외투가 꼭 필요합니다. 패딩점퍼 같은 방한복은 9월이나 10월에 독일로 떠나는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입고 가기엔 적절치 않습니다. 부피가 커서 캐리어에 담기에도 난감합니다. 기숙사에 입주하여 독일 내 택배를 받을 주소가 생긴 이후 한·독 택배를 이용하거나, 현지에서 구매하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부피가 작고 가벼운 항공 점퍼를 챙겨가고, 현지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양털 점퍼를 구매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11월 말이니,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진 않은 시점입니다. 추위가 참을만하시다면 이 할인 기간을 공략해보세요. 상의나 외투와는 달리 바지는 현지에서 구매하기가 곤란합니다. 서양인과의 신체적인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지라. 바지는 수선하지 않고는 입기가 난감합니다. 현지 아동·청소년 브랜드의 바지가 치수는 맞을 수 있겠으나, 이 글을 읽고 독일로 떠날 학우분의 취향에 어울릴지는 의문입니다. 바지는 한국에서 잔뜩 챙겨가시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추가로! 수건은 한국에서 구매해서 가져가세요! 현지에서 사지는 않았지만, 먼저 머물던 학우들의 말에 의하면 수건값이 비쌌다고 합니다.

4.1.2 독일에선 무얼 먹습니까?

지금껏 살아오며, 음식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에 대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저는 음식에 대해 별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참고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짭니다. 답니다. 상상 그 이상으로. 너무 짜서 맥주를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맥주를 마시다 보면 자연스레 다시 음식에 손이 갑니다. 그리고 다시 짭니다. 또 마십니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독일 다녀온 선배들이 왜 살이 찌서 돌아왔는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보고서를 한국에서 보고 계신다면, 어머니께 간단한 음식을 몇 개 배워오십시오. 백종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저는 고급 음식을 할 줄 몰라, 일주일째 파스타와 시리얼 그리고 빵 몇 조각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연명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삶입니다. 한국 음식이 그렇습니다.”

독일 입국 후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국제협력본부에 제출한 도착 보고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초반이라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정말 짭니다. 참고로, 제가 한국에서 건강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나트륨 섭취가 적은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파스타와 스테이크 그리고 빵, 밀과 옥류 중심의 식단도 가끔 먹어야 맛있는 법인가 봅니다. 백종원 선생님의 유튜브를 꼭 구독하십시오. 어머니께 요리도 배우시고, 무엇보다도 짐을 쌀 때 다른 것보다 비비고 간편식을 잔뜩 가져가셔야 합니다. 라면은 필수입니다. 곳곳에 아시안 마트가 있기는 하나, 라면 1봉(5개입 말고 날개 1봉)에 2유로, 한화 2,600원이 넘습니다.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고 장학금을 많이 받거나, 부모님 지원을 넉넉히 받은 학우분이라면 현지에서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배고프고 굶주린 대학생이시라면, 간편식 꼭 챙기십시오. 저는 안 챙겼다가 후회를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밥솥을 무조건 가져가셔야 합니다. 한국인에게 쌀밥이 주는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독일 입국 후 음식 문제로 정말 스트레스였지만, 입국 10일 차 정도에 친구가 한국서 가져온 밥솥을 이용해 쌀밥을 만들어 먹고 나서부터 삶의 질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듣자 하니 요새 미니 밥솥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크기도 작아서 캐리어에 넣어가기에도 충분합니다. 꼭 가져오세요!

고춧가루나 고추장은 아시안 마트에서 조달할 수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와 같은 코리안 소울 푸드는 현지 마트에도 널렸습니다. 결정적으로 고기가 정말 저렴합니다. 저는 5개월 동안 점심은 파스타와 냉동 치킨을 먹었고, 저녁으로는 제육볶음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먹는다면 15~17유로 정도로 장을 봐서 이틀을 보낼 수 있습니다. (외식 물가는 저렴하게 먹었을 때 기준으로 한 끼 20유로 즈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일도 다양하고 저렴하게 근처 마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술도 많고요! 식문화를 즐길 줄 아시는 분이라면 교환학생 파견 생활은 천국이 될 가능성이 큼니다.

“식비는 이틀에 15~18유로 정도 사용합니다. 물론 외식을 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했을 때 기준입니다. 외식 물가는 꽤나 비싸기 때문에 여행 갔을 때를 제외하면 대체로 기숙사에서 해 먹습니다. REWE에서 판매하는 냉동치킨이 맛있습니다. 750g 한 봉지에 단돈 3.79유로입니다. 파스타 면과 소스도 저렴하기 때문에 자주 먹습니다. 파스타 소스는 한국인 입맛에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Lidl에서 판매하는 Ricotta소스 (초록색 뚜껑)를 꼭 사세요. 독일 시중에 판매하는 파스타 소스를 다 먹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게 제일 맛있습니다. 아 그리고 Lidl에서 마늘가루(보라색 뚜껑)를 판매하는데 이거 꼭 사세요 제발! 저는 매 끼니 파스타와 냉동 치킨을 먹습니다. 그리고 종종 REWE에서 판매하는 소시지도 구입 먹고요. 고기가 매우 저렴합니다. 그래서 고기도 자주 구입 먹습니다. 양파를 같이 볶으면 더 맛있어요! 대신 등심은 구입 먹지 마세요. 닭 가슴살만큼 딱딱합니다. 파스타와 치킨 그리고 고기로 이루어진 저의 고향합 식단 기준 4끼에 15~18유로 정도 나옵니다. 꽤나 경제적이지요?”

국제협력본부에 제출한 중간 보고서 중 일부입니다. 상기 서술한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으니, 요약본이라 생각하고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끝으로, 쉬는 날엔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으니 미리 장을 봐두세요!

4.1.3 독일에선 어떻게 지냅니까?



▲기숙사 내부, 2022.10.04.
직접 촬영

저는 Am Kreuzstein이라는 기숙사 9동 UG(반지하) 2인실에서 화장실과 부엌을 공유하며 지냈습니다. 방에는 옷장, 선반, 책상 두 개, 침대, 의자가 있습니다. 사진 속 소파를 펼치면 침대가 됩니다. 세탁시설은 9동 지하에 있으며 세탁기 이용료는 2022년 겨울학기 기준 1회당 2유로(카드결제)였습니다. 화장실은 건식입니다. 샤워 부스와 세면대, 양변기가 있습니다. 2인실 부엌은 비좁습니다. 화로 2개와 싱크대, 그리고 자그마한 냉장고가 있습니다. 화로의 화력은 약합니다. 난방 시스템은 라디에이터를 통해 공기를 데우는 형식인데, 아주 따듯합니다. 옷장이 크고 선반이 많아서 여러 물건을 보관하기에 용이합니다. 침대 커버, 이불, 베개는 모두 현지에서 구매했습니다. 아 그리고 라디에이터가 공기를 덥히기 때문에 기숙사가 상당히 건조합니다. 참고하세요!

샤워기 필터를 챙겨가세요. 독일 입국 후 2주가 지나자 피부가 많이 상하더군요. 샤

워기 필터를 장착하고 나서 필터가 까맣게 변해가는 걸 보며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석회수가 나오고, 수도가 오래되어서인지 녹물도 종종 나옵니다. 샤워기 필터로 피부 건강을 지키세요!

와이파이 공유기를 챙겨가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실내 생활을 위해선 실내 화도 필수죠. 룸메이트가 전자레인지로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고거래를 통해 마련할 수 있으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식기나 주방용품은 룸메이트와 이야기를 해보고, 나누어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이겠습니다.

식수를 조달하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인데요. 저는 장을 볼 때마다 큰 가방을 메고 가 1.5L 생수를 네 병씩 구매해서, 항상 기숙사 내에 9병 정도는 상비해두었습니다. 이런 수고가 번거롭다면, 브리타라고 하는 정수기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숙사 입주에 앞서 멀티탭을 하나 정도 챙겨가세요. Am Kreuzstein 기숙사는 220v를 사용했습니다. 콘센트가 구석에 붙어 있다 보니, 멀티탭이 없다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4.2 FC Eintracht Bayreuth

마침내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버디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파트너 성별을 남성으로 한 것은 다 의도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축구에 관심이 있을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필시 소속팀이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제 버디였던 Julian Hoinle(이하 울리안)에게 축구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 울리안이 자신의 친구 Marius(이하 마리우스)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마리우스는 Bayern 주 Kreisliga 에 속해있는 FC Eintracht Bayreuth라는 팀 소속 선수였습니다. 마리우스를 통해 트레이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10월 14일 역사적인 첫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FC Eintracht Bayreuth에는 다양한 인종의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체적으로 빠르고 강했으며, 기본기가 탄탄했습니다. 좋은 체력을 바탕으로 한 압박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축구를 할 땐 저 스스로 체력이 좋은 편이라 자부했지만, FC Eintracht Bayreuth 선수들을 보자 제 체력은 정말 하찮다고 느껴졌습니다.



▲훈련장과 훈련 모습, 2022.10.~2022.12.
직접 및 친구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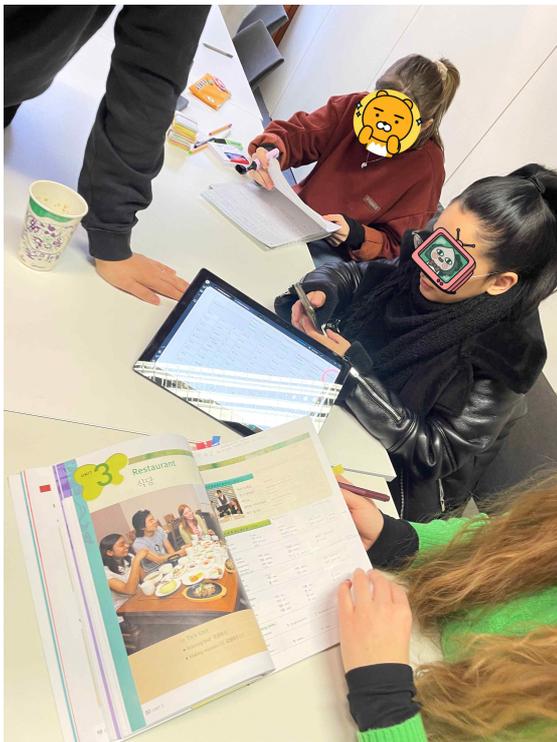
선수들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경기 내내 이곳저곳을 뛰어다닐 수 있는 체력들이었습니다. 공 소유 능력도 우수했고, 시야도 넓어 전환이 빨랐습니다. 연습 경기에서 감독님은 수비팀에겐 강도 높은 압박을 지시하고, 공격팀에겐 간결한 패스를 통해 압박을 풀도록 지시했습니다.

첫 훈련을 마치고 나서, 팀 미팅 이후 앞으로도 훈련에 나와도 좋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FC Eintracht Bayreuth 팀 트레이닝에 참가했습니다. 주간 훈련은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경기장을 크게 4~6바퀴 정도 달리고, 또 경기장을 세로로 달리며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 후엔 감독님이 준비해온 세션을 수행합니다. 대체로 부분 전술에 관한 것들입니다. 움직임과 패스를 연습합니다. 말도 안되게 힘듭니다. 진짜로. 훌륭한 코칭스태프와 또 우수한 선수들과 함께 훈련할 수 있다는 건 정말이지 좋은 기회였습니다.

4.3 한·독 스터디 (Korean German Group)

2022년 12월부터 바이로이트 대학교 이동재 교수님의 부탁으로 독일 학생들의 한국어 공부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교수님 이외의 사람이 사용하는 한국어 발음도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한국어 수업에 두 차례 참석하여 발음 시범도 보이고, 독일인 친구의 한국 대학으로의 교환학생 파견과 관련하여 메일 작성도 도와 주었습니다.

시험 기간을 맞이하여 독일인 친구들에게 독일어를 배우고 한국어를 가르쳐준 적도 있습니다. 한국어 말하기 시험 대본 작성도 함께했습니다. 그 외에도 종종 카페나 친구네 집에 모여 문화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에게 한국식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최대한 원래 이름과 비슷하게 음차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꽤 어색하긴 합니다.



▲한독 스터디 및 대화 내용, 2022.12.~2023.02.
직접촬영 및 Snapchat 캡처

4.4 국내·외 여행

4.4.1 국내(독일 내) 여행

독일로 교환학생 파견을 떠났지만, 독일 여행을 많이 다니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배고프고 가난한 학생인지라, ‘그 돈을 모아 다른 나라를 경험해보는 게 낫겠다’ 생각했던 까닭 때문입니다. 독일에선 뮌헨, 에커스도르프, 뉘른베르크, 슈투트가르트,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베를린에 가보았습니다.

뮌헨은 입국 초반 옥토버페스트때문에도 가보았고, 후에 FC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도 방문했습니다. 그 밖에도 유럽 내 타국 여행을 다니며 환승 거점으로 자주 들렀기 때문에 바이로이트를 제외하고는 가장 친숙한 도시였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사진으로 보는 게 여러분의 뮌헨 방문을 유도하기에 더 설득력이 있겠습니다.



▲Allianz Arena, 2023.01.24.
직접촬영

독일에서 가장 여행하기에 좋았고, 기억에 남았던 도시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뉘른베르크가 되겠습니다. 바이로이트에서 가장 가깝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는 도시입니다. 독일 동남부 교통의 요지로 어디든 여행하기에도 좋으며, 그냥 완벽합니다. 손가락 소시지가 유명한데, 한 번쯤 먹어볼만 합니다. 겨울이면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는데, 유럽 내에서도 유명합니다. 뉘른베르크 성 위에서 내려다 본 시내 사진을 첨부하겠습니다.



▲뉘른베르크 성에서 본 풍경, 2022.10.09.
직접촬영

그 밖에 슈투트가르트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베를린 역시 방문할 가치가 있는 도시입니다. 제가 가보지 못한 독일 서부와 북부에도 쾰른이나 뒤셀도르프, 함부르크와 같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동부에 있는 드레스덴도 빼놓을 순 없죠. 다른 유럽 국가를 여행하다 보면 느끼실 테지만, 상대적으로 독일은 치안이 좋습니다. 시민들도 친절하니까 여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니, 독일어를 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큰 걱정 없이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가을부터 겨울까지 모두 여행하기에 좋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는 11월 말부터 여행해보세요!

4.4.2 국외(독일 외)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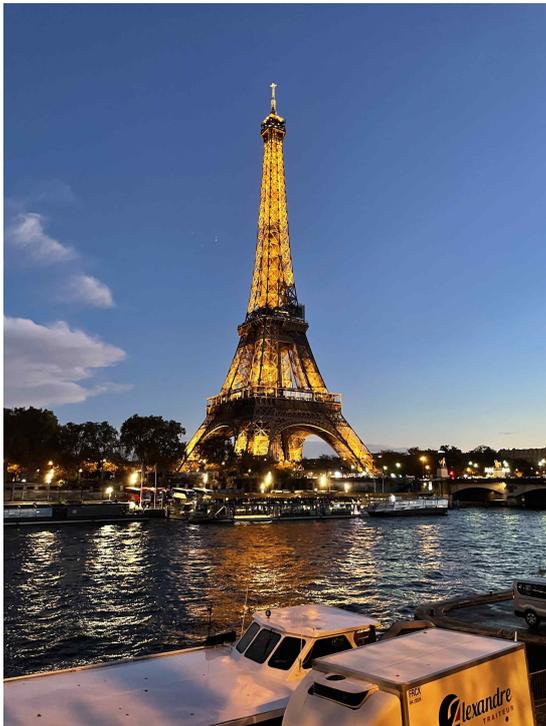
교환학생으로 머문 5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은 국외 여행을 떠났습니다. 10월에는 체코, 11월에는 프랑스, 12월에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그리고 1월과 2월에는 각각 영국과 스페인에 다녀왔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130만 원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다녀와도 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체코에서는 프라하와 체스키 크룸로프,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동화에 나올법한 아름다운 성도 있고, 물가도 저렴합니다. 10월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 내내 날씨도 맑고 좋았습니다. 프라하에는 한식당도 많아서 음식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프라하 야경이 유럽 제일이었습니다. 낭만이 가득한 체코로 떠나세요. 앞서 소개해드린 뉘른베르크와 4시간 정도 거리니 일정을 함께 꾸려보아도 좋겠습니다.



▲프라하성 맞은편에서 본 야경, 2022.10.10.
직접촬영

프랑스는 파리만 다녀왔습니다. 유럽여행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교환학생 파견을 떠난 지 50일 정도가 흐른 후였지만, 에펠탑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유럽에 있다는 게 실감이 날 정도였습니다. 소매치기와 강매가 많다고는 하지만, 다행히 저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살인적인 물가였지만, 견뎌내기만 한다면 완벽한 여행지입니다. 완벽한 도시 파리에 꼭 가보세요.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전경, 2022.11.03.~11.04
직접촬영

다녀보았던 모든 여행지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려 했으나, 그렇게 되면 분량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 소개는 이쯤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역시 만족스러웠습니다. 상대적으로 동유럽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가서인지, 막상 가서 큰 만족을 했습니다. 물가도 저렴했고요. 런던은 듣던 대로 물가가 엄청나긴 했지만, 영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훌륭한 국가다 보니 이것저것 볼 것도 많더라고요. 손흥민 선수의 경기도 놓칠 수 없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서둘러 다녀오세요! 스페인 진짜 제발 꼭 가세요. 독일이 겨울에 해가 뜨지 않아 과장 조금 보태서 몸에 곰팡이가 필 것 같은데, 스페인에 가면 따스한 햇살이 여러분을 맞이할 겁니다. 햇빛이 꽤 강하니 선글라스 꼭 챙기시고요! 개인적으로 스페인 음식이 유럽 최고였습니다. 빠에야 두 번 드세요!

4.5 귀국 준비

4.5.1 기숙사 퇴관 준비

기숙사 퇴관 2주 전 하우스마이스터와 방 검사 날짜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제가 머물던 기숙사의 경우 퇴관 전날 가서 말해도 큰 문제가 없긴 했습니다. 방 검사를 아주 꼼꼼하게 진행하니 청소를 아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5.2 항공권

출국 70일 전에 500유로를 주고 구입했습니다. 카타르 항공을 이용했습니다. 학생 할인이 2회차 이용 시에는 20퍼센트 적용되어 아주 좋았습니다.

4.5.3 기타

바이로이트를 떠나기 일주일 전부터 압멜둥(전출신고와 비슷)을 해야 합니다. 압멜둥을 마친 후에 TK 보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은 ALDI TALK을 사용했기 때문에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계좌 역시 추후 기숙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5. 성취 목표 · 학업/교육 성과

5.1 인문학도로서 배운 것들

독일 축구 클럽 트레이닝 세션에도 참가해보고, 독일인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 활동도 하다보니, 그곳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독일지역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울 수 있어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환학생 파견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 본교 전공 수업시간에 파견 기간에 배웠던 것들을 접목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시장마케팅’ 수업에서는 육상 교통로가 발달해있고,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독일의 특성을 살린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았습니다. ‘독일어문화권의이해’ 수업에서는 독일에서 지내며 느낀 점을 바탕으로 주제적인 삶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는 발표를 진행해보았습니다.

5.2 귀국 후 어학 자격증 공부

영어로의 소통이 원활했지만, 독일어만을 사용해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귀국 후 독일어 공부에 매진해 11월 Goethe Zertifikat Deutsch B1 시험에 응시하였고, 네 과목에서 모두 합격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듣기 과목에서 많이들 힘들어했지만, 파견 기간 동안 독일어 듣기에 익숙해진 덕분에 저는 듣기 과목만큼은 수월했습니다.

6. 개인적인 소감

막연히 떠난 교환학생 파견이었지만, 머무는 동안도, 다녀온 이후에도 저를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된 경험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기도 했고, 생각의 차원을 높여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독일언어문학과 교수님들과 인문대학 교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국제협력본부 교직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우분들께서 수기를 읽으며 많은 도움 받으셨길 바랍니다.

